

韓國文學과 中國文學

陳 祝 三
(中國 政治大)

- | | |
|--------------------------|--------------------------|
| I. 중국에서의 한·중문학 비교연구에 대하여 | IV. 중국문학과 한국문학의 다른점과 같은점 |
| II. 한·중의 문학발전 과정 | V. 결 론 |
| III. 한·중 문학의 영향 관계 | |

I. 중국에서의 한·중문학비교 연구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의 비교연구가 최근 20년 동안 분명 줄기찬 발전을 하였으며 성과도 풍성했다. 한국학계의 이 방면에 대한 노력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으며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반면 중국 대만을 보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공백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주로 상호교류의 불균형에 있다.

나는 여기서, 대만 학계의 이 방면에 대한 비교연구가 뒤떨어진 이유를 변명하려는 뜻은 없고 단지 사실 그대로를 제시하고자 하며, 학계나 관계된 문교기관에서 이 문제를 중시해 주기를 희망한다.

오늘날의 동양보다는 서양을, 人文보다는 과학기술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한·중문학의 비교는 다만 이 방면에 뜻을 지닌 이들의 고군분투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뜻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계와 문교기관의 지원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중국 대만쪽의 이 방면의 육성책으로는 두 대학이 학과를 설립하고 이들 두 대학이 학술교류와 교환학생 등에 의해 기초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외에 자비유학생에 대한 후한 대우 등이 있다. 그런데 교환학생의 파견 과정에서 학생이 공부할 학과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 문학 전공자가 많지 않은 현상을 낳고 있다. 현실적 환경에서 볼 때는 이들 몇몇 문학 전공자 조차도 기특하고 소중하다. 그것은 그들이 귀국하여 활동할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이다. 즉, 그들을 받아들일 학술기구가 부족하고 게다가 인원수의 제한까지 있는 것이다. 중국인인 중문학자 조차도 적잖은 사람들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란 관조직(管道) 즉 연구의 자료·환경·시설 등이 모두 갖춰진 것을 말한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관도를 제공할 수 있는 학술기구는 두 대학과 중앙도서관 뿐인데 또 자료·환경·시설이 모두 불완전하며 게다가 불

완전한 부분적인 자료마저 태반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 물러서게 된다. 문화대학의 金榮華 교수는 삼국사의 「설화」에 관심이 있고, 淡江대학의 王魁교수는 퇴계문학의 연구에 상당한 조예가 있지만 한국의 현대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알 길이 없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극소수의 한국문학 연구자들은 기초작업 즉, 한국문학 작품의 소개와 번역 그리고 한국어 강의 등에 바쁜 지경이어서 어쩌다가 그 비교를 해볼 뿐이며,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먼 장래를 기약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적하는 공백의 지점이다.

반면 한국의 학계를 보면, 이 방면의 연구작업의 추진에 온 힘을 다할 뿐 아니라 후학들에게 대만의 좋은 교육환경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어 스승과 제자가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 토론회의 기회를 빌려 관계된 교육기관에 호소문을 제출하여 한국문학의 연구에 뜻을 지닌 외국인에게 장학금·기숙사 등의 제공과 같은 최대한의 우대를 해주도록 할 것을 희망한다. 그러지 않으면 겨우 몇몇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기초작업조차도 지금의 동양보다는 서양을, 인문보다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II. 한·중의 문학발전 과정

문학은 기본적으로 觸景生情의 것이다. 즉, 사람·일·물건·현상의 접촉에서 생겨난 감정을 문자로 바꿔 서술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문자로 바꿔 서술을 가하기 이전의 「설화」 「노래」는 모두 문학이 아니다. 따라서 문학의 첫째 요건은 곧 문자에 의한 서술이다.

현존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일찌기 은나라 중기에 벌써 문자(甲骨文)가 있었으며, 그후 여러번의 변화를 거쳐 秦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된 정형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갑골문자에서 小篆에 이르는 사이의 각종의 문자 형식들은 모두가 각 시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함께 인식되고 사용되었던 문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說文解字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창힐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는 모두 사물의 종류에 따라 그 모양을 시늉하여 그려냈으므로 이를 文이라 부르며, 그 뒤로 문자의 形과 聲이 서로 합쳐져 늘어났는데 이를 字라 이른다.

중국은 원의 쟁패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즉, 부단한 외래 민족의 점거와 동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매번의 외래민족의 점거에는 항상 方言音의 차이가 있었고, 방언음과 상형문자의 결합에 의한 문자에는 항상 同義이면서 不同形인 문자들이 생겨났는데, 외래민족의 점거가 빈번할수록 문자의 分岐도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통일하여 의사소통에 편리하게 하는 일이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大篆·籀書·小篆이 발명된 배경이다.

문자는 필요에 따라 여러차례 수정·개선되어 秦에 이르렀는데 진을 이어 천하를 통일한 漢 왕조가 부단히 사방의 이민족에 그 힘을 확대시킴에 따라서 사방에 멀리 퍼트려 사용된 후 중국 인근의 이민족들도 한 왕조와의 교류를 위해 이를 채용하였다. 한반도에 거주하던 한민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에서 은나라 중기부터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을 하였다면 당연히 문학의 탄생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 문학 자료에 따르면 민족의 차이에 따라 그 사용하는 문자記述의 표현(문체)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韻文의 경우에 가장 많이 뚜렷하다. 예를 들면 시경의 風·雅·頌의 차이 그리고 楚辭·鄭聲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 즉, 문체의 차이는 민족의 동화에 따라 통일되어 갔다. 즉,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채택한 것이나 이것이 바로 문체가 변천을 겪은원인이다.

사용의 편리를 위해 문자와 문체를 통일하는 것 즉, 많은 사람이 함께 인식하는 한 종류를 채택하는 것은 簡單化라고 말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의 사용의 편리를 위해 문자를 통일하는 간단화는 분명 필요했다. 그렇지만 문체상의 통일을 하는 간단화는 문학의 다양성을 억압했다.

이러한 간단화 현상은 문자와 문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무제가 백가사상을 배척하고 유가만을 숭상한 것이 그 예증이다. 과거제도라는 인재등용의 방법 역시 간단화의 산물이며, 유가의 성선설과 성악설의 분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에서 唐에 이르기까지(여기서 당을 언급하는 것은 신라가 당의 지원을 얻어 비로소 반도통일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新莽·東漢·三國(楚·漢·吳)·晉·南北朝·隨 등의 여러 왕조를 거쳤다. 진·한 때의 통일(즉 “간단화” 되었던 古文은 新莽 때에 다시 육서로 수정된 적이 있었는데 新莽의 멸망과 함께 폐기되었다. 그리고 문장에 대한 논의 역시 삼국시대에 曹丕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또한 위가 진에 망하면서 종적을 감추었다. 남북조시대에 남조의 梁나라 蕭統이 진한 이래의 각 왕조의 시문을 가려뽑았으나 역시 양이 망하고 나자 당시의 중시를 받지 못했다. 오늘날은 조비의 「논문」의 주장과 소통의 「문선」에 실린 시문들이 매우 존중되지만 고대에는 나라를 잃고나서는 왕조를 잇는 신 왕조의 중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앞 왕조에 대한 좋아함과 싫어함의 양극적 감정이 생겨나는 것 역시 “간단화”의 한 현상이다. 중국 문학의 “간단화”는 과거제도의 정형 및 유교사상의 선악관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명정시대 과거제도가 만들어 낸 八股文體와 科場時體는 문체의 “간단화”였으며, 명리에 내몰린 사류들은 이 과장시문을 익히는데만 골몰하였다. 그리고 유교의 선악관은 「善有善報, 惡有惡報」라는 “간단화”를 이루었다.

과거제도가 정형화되고 유교가 뿌리를 굳게 내린 것은 대략 송 때부터였다. 따라서 당조의 사류의 문학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과거와 유교의 “단순화”에 의한 목졸림을 완전히 당하지는 않았었다. 이 때문에 문학을 충분히 이용하여 인간성의 복잡한 일면을 나타낼 수 있었다.

군웅이 쟁패하던 중국 화북지역의 동쪽에 위치하여, 중국과 강물 하나를 두고 이웃하였던 한반도는 상고시대부터 이미 중국과 왕래가 있었던 것 같다. 고대의 중국 주변의 각 민족이 중원을 다투던 시대에 일찌기 한민족도 거기에 참여하였던 듯하며, 더우기 한사군의 왕래까지 있었으므로 옛날부터 이미 중국문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비록 현존하는 한민족의 문학 자료가 단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해서 찾아볼 수 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민족의 중국문자 사용이 특색을 지녔다는 것 즉, 한족의 말을 기록한 한문(이두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라인 薛聰의 한국어 표기를 위한 漢文借音의 통일운동은 문자표기의 “간단화”였다. 즉, 의사 소통에 편리하게 사용할 것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이두문자는 신라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자기 지방의 말을 사용하여 그 문학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신라의 향가가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은 마치 風·雅·頌이 각기 독특한 의의를 지니는 것과 꼭 같으며, 이는 춘추·전국시대에 각 지방의 문학이 각자 그 표현상의 특색을 지녔던 것과도 차이가 없다.

唐에 유학하는 승려와 학생이 증가하고, 인재 등용에 독서삼품제가 차례로 실시됨에 따라서 한어의 한문이 명리의 득실관계를 타고 사류들에게 널리 익혀 알려지고나자, 한국문학은 그 첫번째 “단순화” 즉 한문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 당시가 이미 만당시기였던 까닭에 이들 한문화된 산문과 운문은 모두 만당의 색채를 띠고 있는데, 그중 운문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신라가 망하고 뒤를 이어 일어난 고려는 北周人 雙冀의 건의를 채택하여 과거제도를 수립하였는데 이로부터 점차 문학을 벼슬길로의 첩경으로 보는 관념이 생겨났다. 이런 현상이 과거시험의 준비를 위한 私塾의 발달에 따라 계속 확대된 뒤로 蘇軾과 黃庭堅의 시문은 士類들의 학습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의 李奎報는 시론에 대해 투철하고 심오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역시 고려가 몽고에 부속됨에 따라 별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 결과 문학이 다시 단순화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元이 고려를 지배하던 시기는 표현상의 금기가 가장 많은 때였고 또 고려사람들이 원의 일본 정벌을 돕도록 꺾박을 받던 긴장된 시기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류들은 科場의 시문외에 따로 자신들의 울분을 토로할 좋은 길을 갈구하였었는데 그것이 바로 민간에서 원망과 한탄을 표현하던 俗謠였다. 이 속요는 몽고인이 고려의 말을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곡진한 정서를 잘 표현한 적잖은 작품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유교가 국가와 사회의 유일한 사상으로 자리잡고 나자, 유교의 선악관 및 과거제도라는 단순화에 의해 문학은 목졸림

을 당하게 되었고, 고려 사람들이 남겨놓은 속요들도 그 酬唱이 금지되거나 가사가 고쳐지는 운명에 처하였다.

明 왕조의 초기에 李朝는 元의 보호 아래 있던 고려를 이어 한반도를 차지하였는데 유교사상을 표방한 태조 李成桂는 주자학자들의 협조속에 한반도를 장악한 후 유교사상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동방의 주자학 왕국을 건립하였다. 抑佛崇儒의 정책 이후로 理氣의 논쟁이 일어났고, 주자학은 학자들의 연찬속에 논변을 거듭하며 더욱 밝혀져 나갔다. 그러나 이론적인 논쟁만 중시하고 국방을 소홀히한 양반 관료들은 空理空論으로 나라를 그르쳐 임진과 병자의 난이 잇따라 일어났다. 시급한 수 많은 일들을 져쳐둔 채 사색당쟁이 그치지 않다가 끝내는 나라의 명맥을 바다 건너의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상의 배경시술에서 역사상의 두가지 큰 사건이 한·중 양국의 문학에 완전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대략 지적할 수 있다. 즉, 과거제도의 확립과 유가의 주자학의 보급이라는 두가지 사건은 한·중 양국의 고대 문학이 공통점을 갖도록 결정지은 환경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제도는 한국과 중국에서 똑같이 문체의 고정화와 형식화를 일으켰으며, 유교의 선악관 또한 문학의 내용을 단순화·규격화시켰던 것이다. 이들은 곧 단순화의 결과였다.

그러나 한·중의 문학 발전 과정의 배경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과거제도 확립의 시기가 늦고 일렀던 차이, 유가 선악관의 영향력이 크고 작았던 차이 등이었다. 그리고 시간상의 선후관계 즉, 중국이 앞서고 한국이 뒤따랐던 사실은 곧 양자의 영향 수수 관계를 결정지어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한·중 문학의 영향관계

신라시대부터 중국 문자를 빌려 한민족 스스로의 감정을 기록하여 자신의 문학을 지녀온 이래로 한국에는 두 갈래의 문학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는 중국 문자를 차용한 한국어 문학이며, 다른 하나는 온전히 중국 문자를 옮겨다 사용한 한어 문학이다. 차용과 습용을 막론하고 그 표기상에는 큰 장애가 없었겠지만, 그 선결조건은 한자의 音과 義에 대해 반드시 상당한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하고 적합한 사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설총이 신라말에 의한 훈독으로 후진을 가르쳤던 운동 또한 중국 문자의 정확한 사용에 목적이 있었다.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는 당나라의 막대한 군사력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였으므로 한어의 문장을 학습하는 것은 당시 신라지배층에게 있어 책임을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이 한 갈래의

발전 경로 즉, 외교상의 필요로 일어난 중국 문장학습은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당나라의 문화를 섭취하는 도구가 되었다. 독서삼품과가 실시된 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분명해졌다. 한문은 벼슬과 출세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한문 학습 그 자체는 한자를 차용하는 「이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나, 문제는 순수한 한문이 벼슬길과 관계가 있다는 데 있었으며, 따라서 한문의 학습은 「이두」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두」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 지위를 대신하여 버렸다.

한문은 벼슬길로의 도구가 된 뒤로 자연히 자발적인 추구의 목표가 되어갔다. 이것은 외교상의 필요 때문에 학습하던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것에는 名利에의 유혹이 담겨있었으므로 즉,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利祿과 더 큰 명예를 획득하기 위하여 중국의 시문집을 구하여 학습하였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장법의 영향을 받았고, 또 용어나 문구의 인용도 피하기 어려웠다. 설총의 花王戒 속에도 시경의 어구와 孟軻·馮唐의 이야기가 있으며, 최치원의 시가 높이 평가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만당의 서풍에 국한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 이것들을 모두 영향관계는 상당히 심각하였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 그 결과로 이루어진 詩의 격조가 만당의 격식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 왕조에 들어선 후 光宗의 과거에 의한 관리등용의 제도화는 과거 및 과거가 조성한 사학의 흥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한문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리하여 중국 서적을 구하는 일이 더욱 성해졌다. 비록 고려시대에 반입된 중국 서적의 이름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翰林別曲의 제 2장에 열거된 서적을 통해서 보면, 六朝와 唐·頌의 적잖은 문집들이 적어도 고려 중기 이전에 士人들 사이에 流傳되었음을 믿을 수 있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는 연이어 거란 및 金の 괴롭힘을 겪은데다 또 몽고의 국경압박을 당면하여 집단적 반항의식이 생겨나 이 시대의 특수한 시형인 翰林別曲과 민족 영웅 시인 「동명왕편」을 창조해냈다. 그리고 한시의 思潮 전체가 단숨에 육조와 만당의 四六體의 艷麗한 풍조를 반대하고, 曹丕 이래로 東坡가 걸어간 主氣論의 노선으로 기울어져 豪邁한 기풍을 일컬었다. 일반 문인들도 科場文을 연습하여 급제한 뒤에는 송의 시풍으로 돌아서서, '과거급제자의 방이 나붙으면 사람들은 "서른 둘의 蘇東坡가 나오겠군" 하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가전체의 출현을 보아도 당시의 물정에 어두운 임금과 방탕하고 文弱하여 나라를 망치는 조정 대신을 풍자하는 것이 위주임은 분명하였지만, 역시 韓愈·蘇東坡 등의 假傳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한림별곡 이후의 麗謠 역시 중국시가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전되어 내려와 전통적인 명맥을 보존하였다. 그런데 주자학이 들어온 뒤로는 이들 여요가 음탕한 소리라 하여 수창이 금지 당하였다.

이조는 주자학의 숭상을 건국의 바탕으로 한 왕조였다. 따라서 건국 초기의 한어 시가들은

대개 ‘雅’와 ‘頌’의 체계를 본따 만들어졌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로 비록 가사와 단가 등의 한글 시가가 출현하였지만 중국의 典故를 응용한 시어가 적지 않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유교의 이념인 충효와 의리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소설에 있어서는 그 내용 면에서 시의 경우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체제·묘사방식 등 역시 중국 소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한글로 된 최초의 작품이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水滸志에서, 그리고 묘사방식은 三國志演義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리고 매우 많은 학자들의 높은 평가와 민중의 애호를 받은 춘향전도 그 줄거리는 중국의 「女起解」(또는 蘇三起解, 三堂會審)와 雷同하고 있으며 또 적잖은 「會眞記」(또는 鶯鶯傳, 張生傳)의 장면을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가 중국문학의 영향 아래서 생산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학상의 뇌동들은 매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중국 문학의 아류라는 혹평을 받기조차 하였다.

이조시대에 한·중 문학이 과거의 영향관계를 탈피할 수 없었던 것은 이조가 청·일전쟁에 이르도록 줄곧하여 중국만을 유일한 교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주자학을 숭상하던 국가 정책 아래서 중국의 문물이 주자학과 함께 대량으로 유입되었으며, 더우기 선조 때의 임진왜란 시기에는 중국의 소설과 희곡이 명·청의 지원군과 함께 들어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퍼졌다. 판소리 창 의 연출방식은 바로 중국의 大鼓(京韻大鼓)의 연출과 꼭 같은 것이며, 극조에서만 다른 점이 있을 뿐이다.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뒤 잠시 동안의 독립을 획득했던 한국은 다시 일본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한국의 교류 대상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문학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일본을 통해 서구의 문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관계의 변화들은 앞서 존재하던 문학이 후기의 문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교류의 대상이 영향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교류 대상국이 고정된 어느 한 나라 뿐이며 그 문학이 선진의 것일 경우에는 당연히 깊고도 넓은 영향을 받게 되고 모방까지도 정상적 현상에 속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본·미국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히 일본과 미국의 사상 및 문물의 영향을 받고 나아가 모방까지 하는 형편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교류가 가져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외국의 영향을 받고 모방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본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고 모방을 하여야만 存在·改正·發展의 기회를 갖게 되며, 그러지 않으면 守舊에 안주하여 진보가 부족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문학의 성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문학의 형성과정에는 여러 민족이 융합·동화한 과정의 흔적이 있다. 문체와 문풍에 대한 주장과 개혁은 대체로 科擧와 관계가 있었으니 곧 과

거의 시문에 대한 반발에 의해 변하였다. 과거의 시문은 일정한 制式이 있었고, 딱딱함을 면할 수 없었으므로 변화를 촉구하는 외침이 시대마다 항상 있었다. 唐의 韓愈 등의 古文家들이 文以載道를 주장한 것은 浮華한 과거의 문체에 대한 하나의 반발이었다. 즉, 그 어떤 제도를 규정하든 그것을 반드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문학 활동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중의 문학사조의 생성을 보면, 중국은 땅이 크고 접촉면이 넓었기 때문에 문학사조의 변화가 비교적 많았으며, 시간적으로 자주 있었지만 고대의 한국은 여러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 중국을 유일한 교류 대상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학사조의 변화가 비교적 적었으며 시간적으로 완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문학사조가 한국의 문학에 비교적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밖에 사람들의 생활과 인종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똑같이 유교사회였으므로 생활관념이 매우 비슷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아시아 인종에 속하였으므로 오관과 피부색이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문학의 용어를 차용하고 권선징악의 관념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에서 沿用과 襲用 등의 뒷사람의 지적을 받는 단점이 없을 수 없었다. 우리가 만약 이 점에 대하여 굳이 배껴썼다거나 변안이라고 혹평하고 이를 중국문학의 아류라고 보려 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문학창작의 환경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조의 고대 소설의 시대는 정확히 宋나라의 話本 소설의 시대와 雷同點이 있으므로, 明나라나, 淸 초기의 소설들 즉, 화본이 많은 문인들의 수정을 거쳐 羅貫中·施耐庵에 이르러 완성된 것들과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과학 기술을 구미 선진국들의 것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학 기술의 발전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구미의 선진국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IV. 중국문학과 한국문학의 다른점과 같은점

문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국문학은 중국문학과 비교하여 독특하면서도 다른 점을 지니고 있는 것 외에, 문학의 형태상으로만 본다면, 대부분의 한국한문학은 중국문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의 고대문학은 중국문학에는 부족한 풍자적 요소를 일관되게 간직하고 있다. 즉, 비난과 공격의 이면에 교정과 개선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중국은 시경이래로 이러한 풍자문학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문학처럼 강렬하고 지속적이지는 못했다. 김후직의 諫獵文, 설총의 花王戒가 그 효시가 되며, 그 후에 나온 麴醇傳, 孔方傳, 麴先生傳, 淸江使者玄夫傳, 無腸公子傳, 丁侍者傳, 竹夫人傳, 楮

生傳 등등의 작품이 모두 풍자적인 작품에 속한다. 이 작품들은 군왕이 주지 욕립에만 빠져 있음을 풍자하기도 하고, 德性(人性)의 결함을 폭로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戒世를 위주로 하였다. 이조시대에는 허균의 洪吉童傳, 김만중의 謝氏南征記, 박지원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풍자성을 지닌 문학작품이 된다. 문장으로 말한다면 吊義祭文에 이르러서는 풍자의 극치를 이룬다.

이들 문학의 주안점은 戒世에 있으며, 사건은 단일한 주제에 집중되어 전개되고 있는데, 비록 이규보가 <李史館允甫詩跋尾>에서 ‘만약 무장공자전 등의 풍자적인 작품을 退之가 지은 毛穎下邳와 서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나는 어떤 것이 낫고 못한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 涉及하고 있는 사건이 지나치게 간단화되고, 엄숙한 면이 부족하여 읽는 이에게 주는 傳記體 嬉戲文의 느낌은 오히려 증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상 소설은 인간생활의 반영이다. 인간은 모두 악인이 아니며, 또한 모두 호인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 악인이 반드시 악으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호인도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 하에서 권선징악으로 간단화된 문학은 자연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으며, 인물을 간단화하고 난 후에는 내용이 없게 된다.

삼국지연의도 본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일정한 소설화 과정을 갖고 있다. 즉 일부분의 사실로 시작하여, 전설로 이야기되는 과정을 거치고, 소설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曹操는 매우 나쁘며,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그의 나쁜 점은 오히려 중국인의 높은 재주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조조의 여러가지의 작은 동작들 사이에서 분명히 구분기 어려운 개성과 심리를 발견하고,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선과 악의 교착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동정하게 하고, 몹시 미워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 紅樓夢의 인물을 보면, 賈璉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賈寶玉에 대해서는 그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야기 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 홍루몽에 나오는 사회는 매우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다. 심지어 시너조차도 자살하려고 한다. 이러한 갖가지의 人性의 연출은 삼국지연의나 수호전에 나오는 각 인물의 인성의 연출과도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들 작품이 인생을 그려낸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도록 해준다.

그러나 한국의 고대소설은 비록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설이 되었지만, 오히려 개인의 傳記體에 머무르고 말았다. 집축하는 면이 넓지 못하였고 일면적으로 주인공의 묘사에만 치중하여서, 이러한 점들은 사회문제를 간단히 만들었으며, 사회문제의 응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기 힘들게 하였다. 이는 단지 주인공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통치계층이나 지식인들을 나쁘게 이야기한 결과이며, 곧 문학이 깊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것이 바로 홍길동전의 한계성이며,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없는 점이다. 그래서 인물을 너무 간단하게 보면 문학은 곧 내용이 없게 된다.

박지원의 작품중 虛僞의 人性을 폭로해 낸 것들은 작자의 투철한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다. 양반의 횡포, 사회의 부패, 북벌론의 허장성세, 간사한 상인들의 독과점, 用人의 도둑질, 도피주의, 위선, 守寡 등의 작태가 兩班傳·虎叱·許生傳·閔翁傳·金神仙傳·馬駒傳·烈女威陽朴氏傳과 穢德先生傳 등에 각각 풍자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현상들을 풍자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풍자문학이 결코 문학의 최고의 경지는 아니며, 사회문제가 응어려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중요한 것이다. 왜 당시의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암은 적절히 지적해 내지 못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가난에서 산생되는 것이다. 연암은 단지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치계층을 비난하였다. 백성들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통치계층을 모두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허균과 연암 소설의 공헌인 것이다. 그러나 허균과 박지원은 단지 피지배층이 동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사실상 사람은 모두 동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피지배층도 그렇고, 지배층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성을 타파할 수 있고, 이러한 한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문학이 되는 것이다.

科文과 科詩의 간단화가 한시의 발전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선천적인 조건상 한국인에게는 외국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漢語韻文은, 이를 학습하는데 있어 한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인으로서의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글자를 빌어다 표기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하물며 일종의 새로운 운문형식이 古代에 한국에 전해져 왔을 때는 반드시 한동안의 적응기를 거쳤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동일한 시간대로 비교해 본다면, 그 손색이 있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산문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교의 단순한 선악관도 또한 산문과 운문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받은 바의 외래의 충격은 한국과 비교할 때 더욱 컸으며, 그 변화도 비교적 빨랐다. 비꾸어 말하면, 중국에 있어서의 유교의 단순한 선악관에 반대한 것은, 일찌기 유교의 단순한 선악관이 한국에서 막 뿌리를 내리려할 때에 이미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상의 차이는 영향 관계를 낳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因素를 제거하고 일종의 문학형식의 萌芽로 볼 때, 한·중문화의 배경은 일치하는 것이며, 그래서 차이는 단지 시간의 선후에 있을 따름이다.

문학은 소설이 주류이다. 중국문학이 유교의 선악관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던 것은 대략 明 중엽의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英·正祖代로서 이미 淸朝 중엽이 된다. 그러므로, 영·정조대의 話本式 전기체 소설을 어떻게 송대에 이미 화본소설이 있었고 3, 4세기 동안 발달을 해 나온 중국문학과 서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바이

다.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의 서로 같은 점은 문학의 발전순서에 있으며, 이는 당대의 대다수 문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발전의 배경으로 보면, 역시 유교윤리의 범주에 속한다. 한어로 된 문학이 문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같지 않은 점들을 제외하고는, 양국문학은 창작방향, 주도적인 관념 등에서 매우 일치한다. 여기에 또 인종 상으로도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점과 묘사하는 용어가 사실상 일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때 단지 시간의 선후로 인하여 영향관계가 발생한다. 오직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의 상이한 특질은, 한국의 고대문학은 일관된 단순한 전기체의 諷刺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문학은 복잡한 인간성과 인간관계의 처리와 감춰진 풍자로 보여준데에 장점이 있다 할 수 있다.

고대의 한·중 양국문학작품을 비교함에 있어 우리는 고대의 한국문학작품 중에는 중국고대소설의 典故와 줄거리 배치방식을 활용한 것이 많다. 그래서 얼핏보면, 영향관계가 광범위한 것 외에도,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당시의 한국 고대 소설이 송대에 화본이 인쇄의 최성기를 맞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수요가 가장 컸던 시기에 봉착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작자는 단지 시장의急需를 맞추기 위해서, 작품도 전기체의 시간서술로 전개하였다. 그래서 작품의 수준이 같지 않게 되고, 士人層은 더우기 急需下에 수정을 가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상황하에서, 고대문학은 이조 말엽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신문학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

한국의 고대문학도 황금기가 있었다. 그러나 유교의 교훈적 태도(문학을 孔門西學의 家長末流로 보는 것과 勸善懲惡) 아래에서는 스스로의 문장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학창작에 힘쓸 수가 없었다. 익명으로된 작품이 출판계에 충만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士不屑爲의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강렬한 선악관은 더더욱 문학을 도식적인 오류에 빠지게 만들었다.

V. 결 론

훌륭한 작품이란 많이 읽혀지는 작품이며, 이러한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자 하는 까닭에 그 가치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한편, 教條主義의 관점에서 쓰여진 문학일수록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묘사해 낸 인간성이란 간혹 거짓된 것일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인간성을 너무 간단하게 다루어 문학을 내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한국고대소설은 많은 양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단조로움에 빠져 있다. 그러나, 선인이 동정을 받듯이, 악인 또는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

람이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동정받을 자격이 있다. 선인을 동정하고 악인은 매우 나쁘게 언급하기만 하는 점이, 고대문학이 일방적일 수 밖에 없는 원인이다. 한국고대문학, 특히 소설은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학은 독자에게 별다른 재미를 주지 못하는 까닭에,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고대의 士大夫들에게조차도 즐겨 읽히지 않았다. 인간을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이원화시킨 문학작품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 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읽도록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고대문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중국에서는 삼국지연의, 수호지, 금병매, 홍루몽을 고대문학작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고대 僞道學者들은 이러한 서적들을 痛禁할 뿐이었으니, 고대문학의 前途를 밝히 알만하였다. 고대한국에, 또한 걸출한 문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허균, 박지원 등의 문필력은 중국의 대문호와 匹敵하여 손색이 없었지만, 단지 위도학자들의 기세에 이기지 못하고, 허균은 처형을 당했고, 박지원은 풍자문학에 그치고 말았다.

他山之石으로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듯이,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우수한 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란 본래, 모방의 학습과정상에 있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의 문학연구 또한 모방의 학습과정 가운데의 하나이다. 우리는 서양문학을 읽고서, 역시, 그들의 우수한 점을 취하여, 우리들의 생활을 충실하게 한다. 한·중 양국의 신문학도 우선 일본문학을 통하여 서양문학에 대한 초보적인 試探을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오늘날 양국의 걸출한 문학적 성과는 서양문학의 진보적인 技巧와 思潮에 공을 돌려야 할 것이다. 양국의 신문학은 사회의 자유, 민주, 평등, 번영, 진보를 촉진시키는 것에 있어 마멸되지않을 공헌을 하였으며, 동시에 인류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며, 지혜를 계발하는데에 있어,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고대인들의 활동공간은 반도에 국한되어 있어, 광대한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국제적인 관계도 지리환경의 한계로 인하여, 단지 중국과의 일방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 뿐, 중국 이외의 세계를 접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선천적이고 숙명적인 조건 하에서, 유교의 배타적 선악관이 조성한 「간단화」가 문학의 발전공간에 한계를 부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한국문학은 중국문학의 아류라고 착각하게 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고대문학이 비록 신변잡사를 대상으로 하고, 권선징악을 문학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풍자에 있어서는 특유의 엄격하고 매서움으로 일관한 성취가 있었다. 그러나 소재의 한계성과 선악관의 간단화로 인하여 풍자문학은 鉅作으로 발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고전문학의 한계상황이다. 한편 중국문학 역시 마찬가지로, 전술한 몇가지 작품에서의 성취 이외에 기타 절대다수는 그 한계성과 간단화의 오류와 허위를 갖는다. 이 점이 문학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시간적으로 쫓기는 중에 이 短文을 완성해야만 했기 때문에, 영성한 곳이 적지 않지만, 내 자신이 과거에 문학을 강의하면서 얻은 작디작은 소감을 가지고 발표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관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오류가 적지 않을 것이며, 자료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한 결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여러, 선학들에게 최대의 指正을 해주십사 청하는 바이다. (이 글은 중국어 원문의 번역임 : 편집자주)

